

재정과 복지(조덕호 교수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이 규 환 (러시아어러시아학과)

1. 재정 적자 150억 원의 진실과 위기의 본질

학과장 워크숍에서 기획처가 밝힌 2009년 대비 2017년 누적 등록금 감소액은 150억 원입니다. 이 중 신입생 인원 감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2015년 이후 등록금 수입은 2014년 대비 130억 원이 급감하며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표1 참조)

<표1. 재정운영 현황 분석>

구분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등록금 수입	1,448억	1,467억	1,419억	1,403억	1,419억	1,394억	1,360억	1,289억
편제 정원 조정				20명	20명	202명	394명	474명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적립금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대학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면서 겪고 있는 현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 3개 대학과 우리 대학을 비교해보면 문제의 원인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표2. 신입생 감축수와 학생정원 감소 수>

	신입생입학정원 (2015->2017)	학생정원(명) (2015->2017)	정원내충원률(%) (2015->2017)	정원내재학생수 (2015->2017)
대구대학교	4,351->4,059명	17,960->17,092	99.8->94.4	17,928->16,127
대구가톨릭대학	3,016->2,862명	12,567->12,171	102.3->100.5	12,851->12,230
계명대학교	4,820->4,605명	20,032->19,372	103.8->100.5	20,789->19,461
영남대학교	4,679->4,552명	19,819->19,202	103.6->100.7	20,540->19,346

표2에서처럼 학생 정원은 최근 3년간 대구대학교가 868명, 대구가톨릭대 396명, 계명대 660명, 영남대 617명을 감축하였고 우리 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최소 200명 이상을 더 감축하였습니다. 3년 간 감소한 학생 수 868명에 대구대학교 년평균등록금 680만원을 곱해보면 대략 60억 원입니다.(등록금 680만원 기준 대가대 -27억, 계명대 -45억, 영남대 -42억 추정) 여기에 타 대학은 충원률이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94.4%로 감소하면서 3년간 감소된 실제 학생정원은 1,800명입니다. 이 1,800명의 등록금 적자액은 123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는 타 대학보다 신입생 정원을 많이 감축하면서 생긴 것이 일차 원인이고 이차 원인은 저조한 재학생충원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학이 위기를 타 대학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인데 대학경쟁력과 재학생충원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진단과 처방

2-1. 입학 자원 확보 방안

2017년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은 영남대 99.6%, 계명대 99.9%, 대구가톨릭대 99.8%, 대구대 99.2%로 미흡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6년 기간 우리 대학 대신 대가대를 택한 학생 비율이 11%에서 19.7%로 늘어난 것을 지적한 교수님의 지적처럼 표3을 보면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표3. 2017년도 신입생 등록률 현황(정원 외 포함)>

대학/전형	수	시	정	시	추 가 합 격	최종 등록률(%)
영남대학교	94.9		98.6		65.0	98.3
계명대학교	92.8		99.2		81.5	96.8
대구가톨릭대	90.0		98.2		80.0	98.2
대구대학교	84.0		85.9		37.8	93.7

타 대학에 비해 전형마다 우리 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유독 낮습니다. 중도탈락률(2017년)이 영남대 3.4%, 계명대 4.3%, 대가대 4.3%, 대구대 4.7%여서 년 간 1,000여명이 이탈하는 것은 분명 심각하지만 이는 다른 대학도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처방의 초점은 이탈 방지도 해야 하겠지만 그 이탈 인원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와 입학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편입생과 외국유학생은 모두가 말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서울 지역의 대학을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3월 현재 대구대학교의 외국인 학부생 수는 235명. 반면 전라도의 호남대학교는 2015년 392명이던 학생 수를 512명 수준(2017년)으로 끌어올렸고, 외국인 유학생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고려대학교는 2015년 1,172명이던 학부생을 2년 만에 2,06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유치하였습니다. 편입생이든 외국인 학생이든 서로 모셔가기 경쟁이 펼쳐지면서 사실 상 덤핑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제 값 받으면서 급감하는 입학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2. 추가 자원 확보 방안

1) 교수님은 2023년까지 퇴직예정 인원의 누계는 158명이고 연평균 26명이 퇴직하여 2019년까지 58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획처는 2018년 현재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77.8%(추정)인데 호봉 승급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대체인력 50% 신규 채용 등을 통해 62.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교원충원률입니다. 전임교원 확보률이 2017년도 기준 영남대 81.4%, 계명대 83.4%, 대가대 94%, 대구대 71.1%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전임교원 확보률을 고려할 때 앞으로 퇴직할 교원을 반만 채용하거나 전혀 채용하지 않는 방식은 퇴직한 교원이 소속된 학

과의 존폐 문제와 연관됩니다. 최근 중앙대학교에서는 전임교원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000만원 연봉을 받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을 90명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학과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년과 비정년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원 충원을 일원화하고 보수를 대학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대학 재정의 확대를 위하여 교수님은 DU천하프로젝트를 제안하시면서 국책/정책/연구과제로 2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표4에서처럼 대구대학이 계명대학이나 영남대에 비해 외부기금 수주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표4. 외부 기금 수주와 전임교원 현황(2017)>

구 분	외부기금 수주(천원)	전임교원 수(명)
대구대학교	26,887,621	628
대구가톨릭대학교	21,641,015	642
계명대학교	48,417,931	886
영남대학교	71,723,253	882

하지만 이미 말씀하신 액수 230억 원을 넘어선 270억 원을 현재 수주하고 있고, 개인 연구과제는 교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 대구가톨릭대 보다 적은 전임 교원 수로 현재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7년 기부금은 영남대 60억 원 수준보다는 미흡하지만 30억 원이라는 숫자는 역대 최고 기부금 액수입니다. 현재보다 더 비약할 수 있는 목표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계속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몇 척되지 않는 보트에 누가 타는 가를 제비뽑다가 결국 차례로 바다에 빠져버렸던 배에 타게 될지, 퍼팩트 스톰에 맞서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파도 정면을 향해 맞서 가는 배에 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배 교수님의 고민과 모색이 담긴 발표문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은 아마도 후자를 꿈꾸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글 읽고 여러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